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41p, 중고선가치수 154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41p(+4p, WoW), 중고선가치수는 154p(+14p, WoW)를 기록함. 지난주 Shell이 다수의 LNG 운반선을 발주함. 현대중공업은 174,000CBM급 LNG운반선을 팬오션으로부터 2척, 익명의 선주로부터 2척 수주함. 현대삼호중공업도 같은 사양의 LNG운반선을 2척 수주함. (Clarksons)

Nissen Kaiun emerges as owner of VLGCs booked at Hyundai Samho

현대삼호중공업이 일본 니센 가이운으로부터 86,000CBM급 LPG추진 VLG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선가는 척당 8,250만달러, 인도기한은 2024년 6월, 9월임. (Tradewinds)

STX조선, MR탱커 2척 수주

STX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50,000DWT급 MR탱커 2척은 SteelShips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보도됨. 선가는 3,700만달러, 인도기한은 2022년 11월임. (선박뉴스)

'컨' 시장 선복 과잉 유령 어른거리

연말경에는 신조선 발주잔량이 기존 운항 선대의 24%에 달할 전망이다. 금년 상반기 발주량은 지난 20년간 반기별 평균 발주 실적의 약 3배가 넘는 수준임. ONE, Maersk 등 연말까지 발주량은 더 늘어날 것임. 이에 구조적인 선복 과잉 우려가 제기됨. (선박뉴스)

Shell · MSC, 탈탄소화 박차

Shell이 세계 2위 선사 MSC와 탈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궁극적으로 제후를 통해 zero-carbon flexi-fuel 선박을 개발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OPEC+, 8월부터 추가 감산 완화 합의

OPEC+는 현재 하루 580만 배럴 감산 규모에서 40만배럴씩 추가적 완화조치에 합의함. UAE의 원유 생산기준은 일일 320만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상향함. 이라크, 쿠웨이트, 러시아의 기준도 상향했으며,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연합뉴스)